

66년 만에 되찾은 봉산탈춤의 원본

글 서연호 고려대 교수

봉산탈춤은 1967년 6월 16일에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 그후 연희와 연희제구 일체는 서울에 본부를 둔 봉산탈춤보존회(회장 윤옥)에서 전승해 왔다. 지정 당시 <조사보고서>와 <연희본>은 이두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담당했다. 이두현은 1997년 7월에 발간한 「주석본 한국가면극선」의 <봉산탈춤> 부분에서, 옛 연희자인 김진옥과 민천식(서도민요창자)의 구술로 1965년 8월에 <연희본>을 채록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자신이 그 동안 확인한 <연희본>은 송석하(1940년)·임석재(1957년)·물질문화보존회(1955년)·김일출(1958년)이 채록한 것들이었다고 참고문헌에 기록했다. 가면극 연구자로서 필자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 탈춤의 조사기록과 채록원본을 찾고자 노력했다. 바로 1년 전, 봉산탈춤의 「오청(吳淸)채록원본」(이하 원본으로 칭하기로 한다)을 66년 만에 되찾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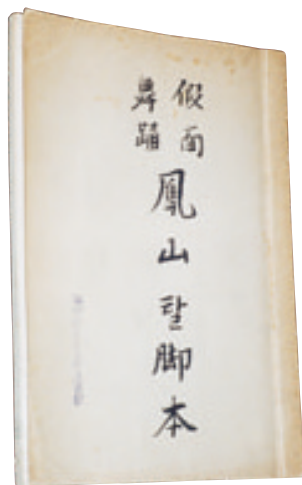
봉산탈춤 「오청채록원본」 66년 만에 되찾아

2001년 11월 10일, 필자는 정년퇴임 준비로 대학 연구실을 정리 중이던 히로시마현립여자대학의 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 교수를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선생으로부터 놀랍게도 원본을 기증받았다. 작고한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1878~1967) 은사의 유고인데, 필자가 연극 전공이어서 특별히 주고 싶다는 말씀이었다. 1984년도 덴리(天理)대학 외국인 교수로 나를 초빙해 준 인연으로 선생의 퇴임을 사전에 축하해 주기 위한 방문이었는데, 뜻밖의 수확을 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한국 문화재를 되돌려준 깊은 배려에 감사한다.

먼저 다카하시와 오청(吳淸)의 관계를 간략히 소개해 두기로 한다. 다카하시는 1902년 동경제국대학 한문과를 졸업하고 『구주일보(九州日報)』 주필로 근무했고, 이듬해 연말에 한국 정부의 초빙으로 한성관립중학교(후의 경성고등보통학교, 현재 경기중고등학교) 교사로 서울에 왔다. 그의 처(太田塚原)는 한성병원에 근무하면서 이왕가 시의(李王家侍醫)를 했다.

1910년 조선총독부가 생긴 이후, 그는 여러 분야의 조사촉탁직을 맡아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줄곧 총독부의 정책자문에 응했다. 1926년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직을 맡아 '조선어학문학제일강좌'를 담당했다. 1939년에 동 대학 교수를 정년한 후 서울에서 중요한 기관장을 역임하다가 일본의 패전으로 야마구치현 하가시(萩市)로 귀국했다. 다카하시보다 직급은 낮았지만, 역시 총독부의 조사촉탁이었던 오청의 원본이 다카하시문고에 수장된 동기는 이상과 같은 두 사람의 촉탁사무 관계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高橋亨先生年譜略’ 참조).

다카하시와 오타니의 관계는 덴리대학의 사제간이다. 하기시에서 지내던 다카하시는 1949년 후쿠오카상과대학 교수가 되었고, 이듬해 덴리대학의 교수로 옮긴 이후 1964년 3월까지 재직했다. 이 기간에 조선학회, 오야사토 연구소를 창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1955년 3월에 덴리대학 조선학과를 졸업한 오타니는 재학 시절 다카하시의 지도를 받았고, 1962년 4월부터 1964년 3월까지 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유학하여 구자균(具滋均) 교수의 지도로 한국고전문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다카하시와 구자균은 경성제국대학 시절의 사제간이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구자균과 오타니도 사제간이 되었다.

이상 3인의 사제관계는 학문 연구사에 특기할 만한 일이다. 다카하시는 애제자인 오타니에게 자신의 문고를 남겨주고 지바(千葉)로 이주하여 살다가 작고했다. 작고하기 9개월 전인 1966년 11월 11·12일에 오타니는 최초이자 최후인 ‘다카하시 선생과의 문답체 녹음’을 실현하였다. 원본이 다카하시 문고에서 오타니 소장본으로 이전된 것은 이상과 같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大谷森繁’ ‘今西春秋’ 참조).

1936년 10월에 다카하시에게 기증되어 그의 문고가 된 원본은 1964년 4월에 오타니에게 이관되어 그의 소장본

이 되었고, 2001년 11월에 필자에게 다시 이관되어 필자의 소장본이 되었다. 이런 경과로 원본은 한국 학계에서 최초로 공개되기에 이르렀다.

구자균의 〈필사본〉은 1983년에 공개

다음으로, 이 원본과 다른 이들이 발표한 〈연회본〉(이본)의 차이점을 밝혀보기로 한다. 원본은 오청 자신에 의해 번역되어 1937년 2월에 〈일어본〉(편의상 ㉞로 약칭)으로 발표되었다(‘假面舞踊劇 鳳山タル脚本’ 참조). 필자는 ㉞에 대하여 이미 간주(簡注)를 발표했다(簡注 ‘吳晴 鳳山タル脚本’ 참조). ㉞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1936년 8월 31일에 봉산탈춤이 사리원읍 경암산 아래서 공연되고, 오청이 10월 19일에 발표한 원본에 대하여 그 자신이 그후 어떠한 수정을 가했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말하자면, 그 자신이 만든 완결본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토 결과를 성급하게 말하면, ㉞는 일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소 설명적인 표현을 가미하여 번역했고, 전달이 애초부터 어렵다고 판단한 대목은 생략하거나 축약(縮約) 번역했으며, 원본에서 오류라고 판단한 몇 가지 어휘만을 수정한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거의 원본에

가까운 내용이다. 원본을 필사한 구자균(一梧文庫)의 <필사본>(㉔)은 매우 값진 것이었지만, 1983년 김흥규(金興圭)에 의해 뒤늦게 공개되어, 그 이전의 봉산탈춤 연구에 기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봉산탈춤 1936년 채록본에 관하여’ 참조). ㉔은 보성전문학교 시험용지(37.5×26cm) 45장에 필사되었고, 구자균 선생이 1946년에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된 사실로 미루어, 빨라도 광복 직후에 필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원본이 어디엔가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그 동안 술한 관련자들이 부실한 채록본을 가지고 공연하거나 연구한 과정을 되돌아볼 때 원본이나 다름없는 ㉔이 진작 공개되었더라면 제반 성과는 더욱 컸을 것이 분명하다.

송석하와 임석재는 원본 공연시에 현장에 참관한 인사였다. 송석하는 1940년 6월호 『문장』지에 <봉산가면극각본>(㉕)을, 임석재는 1957년도 『국어국문학』 회지(18호)에 <봉산탈춤대사>(㉖)를 각각 발표하였다. 대조해 본 결과 ㉔은 원본을 그대로 필사한 것이었다. 다만 몇 개 한자 어휘를 수정하거나 애매한 어휘를 나름대로 다르게 기술한 것뿐이다. ㉕ 역시 원본을 거의 그대로 필사한 것이었다. 다만 임석재의 경우는 원본에서 애매한 부분들을 모두 중국 원전(原典)과 내용에 따라서 수정했고, 배역과 장소에 따라서 변경되는 일부 대사를 원본의 대사와 병기(併記)해 놓았으며, 원본의 장황한 지문(地文, 指文)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전문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일부 변경(變改)은 그가 봉산탈춤 공연이 끝난 후 연희자들에게 질의한 내용을 원본에 추가한 것인지, 혹은 자신의 견해로 그렇게 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무형문화재 공연과 연구 재검토해야

이상의 ㉔, ㉕, ㉖는 철자법을 고친 것이 원본과 차이를 드러낸다. 어의(語義) 및 어투(語套)를 정확하게 기술하려는 태도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대 연희자들의 재담관행(才談慣行)을 그대로 채록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역설적으로 적지 않은 무리가 자행되었다. 주석본(註釋本)과 채록본(採錄本)의 개념을 혼동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김일출은 “현재 봉산

탈놀이 대본은 보존위원회의 리동벽(李東碧) 구술본, 리장산(李獐山) 구술본, 박성찬·김수정(金洙貞) 구술본 등 세 종류가 있다”고 하였고, 자신이 1953년에 채록한 박성찬 구술의 <봉산탈놀이대본>을 발표하였다. 재담의 전개만을 간략하게 기술한 매우 부실한 채록본이다. 보존위원회에서 리동벽 구술본을 사용한다는 지적은 북한에서도 원본을 참고했다는 방증이다(‘조선민속탈놀이 연구’ 참조).

1936년에 채록된 원본은 당시 생존했던 유능한 연희자들이 대규모로 결집하여 전 과정을 충실하게 공연한 ‘원형기록’이라는 데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있다. 그 이후 그런 공연은 다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이두현에게 구술한 김진옥은 당시 42세로 먹중5목, 거사, 사자후미 역 등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 원본은 채록본으로서 몇 가지 결함도 지니고 있다. 즉 한자어휘(漢字語彙)를, 공연 당시 연희자들의 사투리발음 그대로 기술하지 않고, 한자로써 그대로 기술했다. 고유어휘(固有語彙)는 사투리발음 그대로 기술했지만, 1930년대의 철자법에 근거한 통일성이 부족하다. 채록과정에서 오기(誤記)와 오자(誤字)가 상당량 그대로 기술되었다. 대사의 중복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연희관행(演戲慣行)인지 연희자들의 착각인지 규명되지 않은 채 기술되었다.

원본은 프린트본(19.5×26.8cm)이어서 적어도 수권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이유로 해서 관련자들에게 수장되었을 터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동안 원본은 학계에 공개된 적이 없었다. 아울러 그 동안 원본과 흡사한 채록본들이 적지 않게 유통되어 온 것도 원본 공개와 관련하여 매우 의심스러운 국면이 아닐 수 없다. 필자의 의뢰에 의해 원본을 검토한 봉산탈춤의 대표적인 연희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최창주 교수는 “제1과장 사상좌의 등장방법, 제2과장의 팔먹중 못동춤, 제3과장의 노래종목, 제4과장의 원숭이 매맞기, 제6과장의 양반모습, 제7과장의 남강노인의 무당 역할 등 현재 공연내용과 차이가 적지 않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제 뒤늦게나마 원본이 확인된 이상, 문화재관리국은 봉산탈춤의 무형문화재 공연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기존 봉산탈춤의 연구에도 재고찰이 필요하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